



품종갱신 방법

1. 묘목식재에 의한 갱신

■ 일시 갱신

- 나무를 일시에 베어내고 묘목을 새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고사목이 많은 노령화된 재배지에 적합
- 갱신과정에서 나무가 어리므로 3~4년간 수확량에 공백이 생김

■ 보식 갱신

- 밀식원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성목을 한 줄씩 또는 소규모 집단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자람에 따라 방해가 되는 기존 품종의 수관을 서서히 축소
- 수확량의 공백기간이 없이 품종갱신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주위의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그 사이에 심겨진 어린나무가 일조량 부족으로 충실히 자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

2. 고접에 의한 갱신

- 기존의 밤나무를 대목으로 삼아 접목에 의해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묘목으로 일시에 갱신할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
- 5년생 이하의 유목인 경우에는 주지의 직경이 작으므로 일시에 갱신하는 방법이 유리함
- 10년생 이상의 성목의 경우 주지가 굵어 곧바로 접목하기 어려우므로 고접하기 1년 전에 주지를 잘라 맹아지를 유도한 다음 이듬해 맹아지에 접목을 하는 점진갱신이 바람직 함



고접갱신 대상목(5년생)



대목 조제



고접완료

고접갱신 과정



박접에 의한 고접갱신



맹이지 이용 점진갱신



접수보호용 비닐 씌움



3. 고접목 관리

- 고접 대상목은 일시에 너무 강전정 되기 때문에 접목 당년에는 시비를 금함
- 고접 후 접수에서 자라난 어린 새순을 까치 등 조류나 해충이 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새순이 5cm 정도 자랄 때까지 접목부위에 위가 트인 비닐봉지를 씌워줌
- 대목에서 발생하는 맹아지는 주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며, 접목한 부위에 밀생한 잎은 솎아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 박쥐나방 등 해충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함
- 새순이 20~30cm 정도 자라면 접목부위가 잘록해져 부러지기 쉬우므로 접목테이프를 풀어서 다시 감아주도록 하며, 6월 이후 새순이 왕성히 자라기 시작하면 접목부위가 약해 가지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바람 등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쉽게 부러지므로 지지대를 부착하거나 가지고르기를 해 주어야 함
- 지지대 부착은 노력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6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 간격으로 새순의 끝을 잘라주는 적심을 통해 가지의 길이생장을 억제하고 곁가지 발생을 유도함. 또한 밀생한 가지는 솎음전정을 통해 제거하여 접목부위가 유합되어 어느 정도 목질화 될 때까지 새가지의 무게를 경감시켜 주어야 함
- 8월 중순 이후에는 접목부위의 목질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밀생한 가지만 솎아주고 계속 자라도록 함
- 주기적인 가지고르기(적심 및 솎음전정)로 인해 발생한 가지 수가 많고 남은 가지가 충실하게 자라므로 이듬해 겨울철 전정 시 수형조절이 용이하여 고접 2년차부터 저수고 수형으로 유도하기가 쉬움



고접 후 새순생장 (6/8일)



2차 가지고르기 후 (7/10일)



3차 가지고르기 후 (7/23일)



4차 가지고르기 후 (8/30일)



고접 후 1년차 전정 전



고접 후 1년차 전정 후